

간찰(簡札)이란

용어

1. 함신(函信)·함독(函牘)·함서(函書)·함찰(函札)
2. 서한(書翰)·한찰(翰札)·한독(翰牘)·한묵(翰墨)
3. 어안(魚雁)·어복(魚腹)·어전(魚箋)·어백(魚帛)·어함(魚函)·어신(魚信)·어신(魚訊)·어서(魚書)·어함(魚緘)
4. 안족(雁足)·안서(雁書)·안음(雁音)·안홍(雁鴻)·안백(雁帛)
5. 수묵(手墨)·수찰(手札)·수한(手翰)·수자(手滋)·수간(手簡)·수간(手束)
6. 화전(華箋)·화한(華翰)·총전(寵箋)·전찰(箋札)·전독(箋牘)·전찰(牋札)·척소(尺素)·서장(書狀)
7. 신식(信息)·신음(信音)·신편(信便)
8. 함찰(緘札)·함서(緘書)·함한(緘翰)·함음(緘音)
9. 적독(赤牘)·소간(小簡)
10. 운함(雲函)·타운(朵雲)·편저(片楮)·편지(片紙)·편전(便箋)

구성

간찰은 크게 피봉(皮封)과 내지(內紙)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봉투를 일반적으로 피봉이라고 불렀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봉투 방식은 19세기 후반 서양의 근대 우편제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단, 먼 지방을 왕복할 경우나 특별히 상대방을 존중해야 할 경우에는 피봉을 한 번 더 쌓는데, 이것을 중봉(重封)이라고 한다.

형식

지금의 편지 봉투는 가로로 긴 장방형으로 상단 왼쪽에는 보내는 사람, 하단 오른쪽에는 받은 사람을 적는다. 간찰은 지금의 편지와 달리 세로로 긴 장방형의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받는 사람·왼쪽에 보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적는 것이 정격(定格)이지만, 가족이나 친척·사제간·동료 등에게 보낼 때는 보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생략하고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만 적기도 하고 때로는 받는 사람이 관직에 종사하는 경우 관직명이나 직소(直所)만 적기도 한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이 '상서(上書)' 또는 '근배상후(謹拜上候)' 등과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한다.

피봉의 위아래 종이가 접히는 곳을 봉함처(封緘處)라고 하는데, 여기에 '삼가 봉한다'는 뜻을 나타내거나 공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별한 글자를 쓴다. 근봉(謹封)을 비롯해서 경봉(敬封)·돈봉(頓封)·봉(封)·근돈(謹頓)·돈(頓)·완(完)·함(緘)·배(拜)·식(式)·경(敬)·숙(肅)·정(貞)·각(恪) 등이 그것이다. 한편, 봉함처에는 봉함인(封緘印)을 찍기도 하는데 주로 피봉의 상단에 찍는 경우가 많다. 봉함인으로는 근봉·함·봉·호봉(護封)·근기(謹記)·전신(傳信) 등의 글자를 쓰기도 하고, 각 집안 또는 개인마다 고유의 문구나 명문(名文)·수복(壽福)과 관련된 글자를 새겨서 쓰기도 한다. 그리고 피봉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피봉 하단 봉함처에 근봉의 글자 앞에 간찰을 보내는 사람의 착명(着名)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다.

내지의 구성은 크게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첫 번째는 서두로 간찰의 머리말이다.
2. 두 번째는 후문(候問)으로 받는 사람 즉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대목이다.
3. 세 번째는 자서(自叙)로 간찰을 보내는 사람 자신의 근황(近況)을 서술하는 대목이다.
4. 네 번째는 술사(述事)로 사연을 적는 대목이다. 문집 속의 간찰은 대체로 술사만 수록되는 경우가 많다.
5. 다섯 번째는 결미(結尾)로 간찰의 끝 부분이다.



尊侍 謝狀上
南陽 衙史

伏蒙
尊問且受
嘉貺鹿脚令
席義何以及此行而倍
而心闡
賢如高中柏悅以和儒
祝
起居為安謹謝狀
癸卯月初年
東亮 啟

尊侍 謝狀上
南陽 衙史

伏蒙
尊問且受
嘉貺鹿脚 令

厚義 何以及此 仰謝倍
品 似聞
賢郎高中 栢悅何極 餘
祝
起居萬安 謹上謝狀
臘月 初六日
東亮 拜

1) 황희(黃喜, 1363~1452) : 자는 구부(懼夫)고, 호는 방촌(龐村)이며, 본관은 장수(長水)다.

謹承
尊遠札 就審新年
閑況保重 遙賀萬萬
賢胤 遠涉嶺路 今又失意而去 有才
無命 殊可怪嘆 而亦豈無亨泰之
日也 只以
尊兄之老境漸深 爲可慮
先稿序跋 托非其人 實所難承 第以
載名其間 爲榮輝 頃已掇拾若干
語 而冗忙雲集 尙未脫稿 可嘆可嘆
當埃後便 臘劑少許 略表微忱 再
伏惟
尊照 謹謝狀
辛巳 仲春 念七 舊拙 喜 頓

2) 하연(河演, 1376~1453) : 자는 연량(淵亮)이고, 호는 경재(敬齋)며, 본관은 진주(晉州)다.

侍奉 政履安穩 足替一
面 慰感交至 迷豚北行
出於自作
聖恩如天 不謫以官 渠亦年
少無病 往莅何害 不
遠弊邑 以
書來慰 可見
故人鄭重
厚眷 感與謝并 弊縣 雖曰
海邑 乃是泓口 流漸僅

消魚未興產 略將醢物
少許 以表下忱 伏惟
尊下鑑 謹拜
上謝狀
戊午 三月 初吉 演

3) 유성원(柳誠源, ?~1456) : 자는 태초(太初)고, 호는 낭간(琅玕)이며, 본관은 문화(文化)다.

稽顙 卽奉
華字 慰沃可言
吟履清絕 殊呈高昂
瓊什謹置 焚香以讀然後
歸之 近者 時與士行
一作剝啄聲如何 企甚
不次
卽 罪弟 誠源 疏上

4) 김숙자(金叔滋, 1389~1456) : 자는 자매(子培)고, 호는 강호(江湖)며, 본관은 선산(善山)이다.

頃蒙
令枉陋 向承
令札 感慰交至 弟 重得寒疾
呻痛度日 苦悶苦悶
示事書上耳 俟
兄晚直造拜是計 伏惟
令量 答上狀
乙酉 正月 初九日 申時
叔滋 頓

5) 조여(趙旅, 1420~1489) : 자는 주옹(主翁)이고, 호는 어계(漁溪)며, 본관은 함안(咸安)이다.

倅回 承得
委覆 良用慰荷 疏
草覽後 謹完
旣出之後 不參舉動
遽爾引入 似不穩便
更思之如何 餘困倒
倩草不宣
卽 旅 頓

6) 김종직(金宗直, 1431~1492) : 자는 계온(季溫)이고, 호는 점필재(佔齋)로 강호(江湖 : 金叔滋)의 아들이다.

近來

起居何如 爲慕不已 前

日寄問 時未見回

報 無乃浮沈於中道

耶 今見士仰之歸 職

事所係 不得同之恨焉

餘懷萬在 此行所

傳不多及 伏惟

令鑑 謹狀

庚之六月 念五 宗直

朝承
 令書問 仰感無量 仍悚 老親壽
 辰 在來初 欲暫行杯酌於初四
 日 幸乞
 令榮臨 千萬切仰 亞使 亦爲此許
 留受日
 令豈憚一日之勞乎 深企深企 伏惟
 令鑑 謹拜上謝狀
 乙卯 二月 廿七日 戚下 時發 頓

朝承
 令書問 仰感無量 仍悚 老親壽
 辰 在來初 欲暫行杯酌於初四
 日 幸乞
 令榮臨 千萬切仰 亞使 亦爲此許
 留受日
 令豈憚一日之勞乎 深企深企 伏惟
 令鑑 謹拜上謝狀
 乙卯 二月 廿七日 戚下 時發 頓

1. 채수(蔡壽, 1449~1515) : 자는 기지(耆之)고, 호는 나재(懶齋)며, 본관은 인천(仁川)이다.

日者 喪家之奉 迨用依悵
卽惟行園往來之餘
令候萬相 此中兒子醮禮 將
行於十一日 繞客 雖之是俗禮之
廢 亦涔埋沒 欲邀一家若
干人 隨往 幸令忘勞惠臨
如何 彝令家 亦必相邀 而
令豈舍親族而赴婚家乎 茲
以專特煩告 餘姑不旣 伏惟
令照 卽 壽 頓

2. 조지서(趙之瑞, 1454~1504) : 자는 백부(伯符)고, 호는 지족당(知足堂)이며, 본관은 임천(林川)이다.

夜來
所患如何 已消斑否 極順云
極幸 君家諸兒 或
有消滅者 或有發斑
者 丁生書詳報 不爲疊
床 要之 畢竟都無
事耳 藥則幸兒奴 專
送可也 餘不具
卽 之瑞 頓首

3. 정광필(鄭光弼, 1462~1538) : 자는 사훈(士勛)이고, 호는 수부(守夫)며, 본관은 동래(東萊)다.

病蟄窮巷 絕未聞外事 忽地承拜
下札 始審行旆辰洛
侍履萬重 伏慰何等 第
復路在明 無計進拜 是切悵仰 侍生
宿患痰核 當暑添苦 呻痛度日 伏
悶何喻
下惠三饜秋露 適及於病渴之中 洗
盞急酌 如飲瓊漿 深認
下眷 感珮何已 惟祈
行李珍重 卽伏惟
下察 再拜謝狀上
戊申 七月初三日 侍生 光弼 頓首

4. 이준경(李浚慶, 1499~1572) : 자는 원길(原吉)65)이고, 호는 동고(東臯)며, 본관은 광주(廣州)다.

前月廿八日 奉讀
辱書俯問 就審春寒
起居若何 頃舉審理 又至
落莫 缺然之懷 尤何可言 弟 明
日將發東行 而計其日字 恐
未及於科日 以是爲慮耳 千
里之行 未暇面謝 伏歎如何
只祝
尊履珍護 不宣 伏惟
尊照 謹謝狀
辛巳 二月 九日 弟 浚慶 頓

5. 박영(朴英, 1471~1540) : 자는 자실(子實)이고, 호는 송당(松堂)이며,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省式 積闕阻晤 居常
耿悵 卽問陽生
啓居連勝 區區仰溯之至
僕 親候數朔彌寧 憂遑
何喻 文監牧 意外長逝 慘
怛之極 非特爲私好而已 想
左右 亦同此慘 痛哉痛哉 爲
乞新年七政 茲以專倅 或
記爲之否
付惠 至仰至仰 不宣狀式
乙酉 初五 英 頓

6. 노우명(盧友明, 1471~1523) : 자는 군량(君亮)이고, 호는 신고당(信古堂)이며, 본관은 풍천(豊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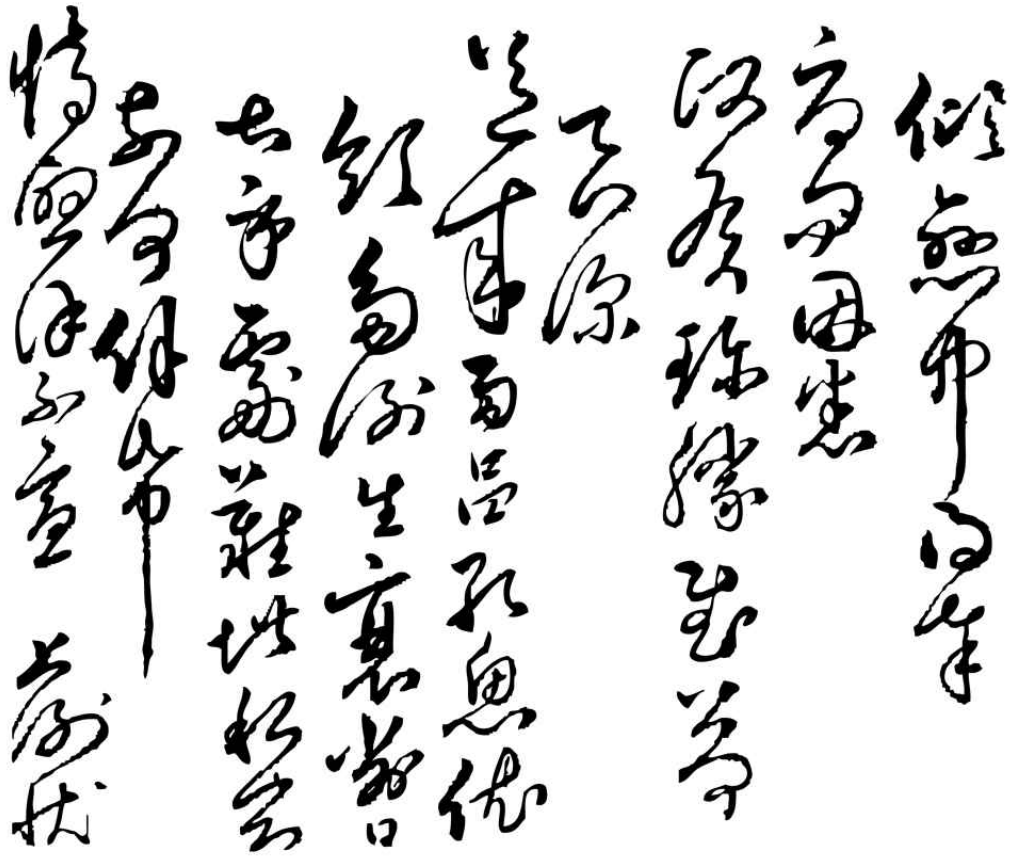
昨有出入歸 聞
兄題鳳 爲愧恨 承
書 恰一慰也 夜
況 復如何 弟 今日 當靜居
須賁臨 否則埃晚 當
進去 不宣 明中 頓

7. 김정국(金正國, 1485~1541) : 자는 국필(國弼)이고, 호는 사재(思齋)며, 모재(慕齋 : 金安國)의 아우다.

新歲 得承
尊翰 聞
尊茂膺益福 遙慰無任
惠來歲儀依受 仰慰仰慰
閤衙萬相 伏惟
下鑑 謹拜謝
上狀 正月 初三日 正國
頓

8. 이우(李堦, 1469~1517) : 자는 명중(明仲)76)이고, 호는 송재(松齋)며, 본관은 진성(眞誠)이다.

近患寒疾 伏枕經旬
令邊消息 邈然不聞 何歎
如之 既離配所之後 過冬
於何處耶 不堪鬱悵 茲
付一書於永川官便 以探
令所住耳 朝報送呈
覽卽還擲 伏惟
令照 謹上候狀
甲午 十二月 初六日 堦



傾戀中 得奉
府問 因悉
政候珍勝 慰荷
良深
送來兩品乾魚 依
領多謝 生 衰敝日
甚 身劇難堪 私悶
奈何 餘希
情照 謹不宣 上謝狀

1. 주세붕(周世鵬, 1495~1554) : 자는 경유(景游)85)고, 호는 신재(愼齋)며, 본관은 칠원(柒原)이다.

昨

覆慰甚 丹丘騎
借之 亦幸 通宵篝燈
三四讀 足見一養之於
千里之外 而但不見向時
所見奇偉之句 無乃
此人精神 太半爲喪
子所靄耶 然體段
極有中的處耳 歸
事 不在今日在明曉
不得一敘 殊可恨也
忙甚不次
卽 景 弟 拜

2. 백인걸(白仁傑, 1497~1579) : 자는 사위(士偉)고, 호는 호암(休菴)이며, 본관은 수원(水原)이다.

意外 承拜
令惠札 從審
令候萬珍 慰賀萬萬 生
老病如昨 尙何言
惠寄藥材與魚種 無非
老病人要物 珍謝
厚誼 無以鳴言 萬萬統
希
令照 謹謝狀
七月 九日 仁傑 頓

3. 임훈(林薰, 1500~1584) : 자는 중성(仲成)이고, 호는 갈천(葛川)이며,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自北歸來 益有愁
耿 卽承審春峭
樞履增恙 慰瀉之
極 如獲良晤 薰 病添
風土 衰與德俱 漸瘁
厭厭 無佳處耳
惠饋諸種 深欣
情寄 遙謝深深 不

宣式

癸巳 二月 十三日

薰 謝

4. 조식(曹植, 1501~1572) : 자는 건중(楗仲)이고, 호는 남명(南溟)이며,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遙想絕塞 歲已盡矣

旅況能得安穩

馳情日以切矣 生

奉老粗遣外 頃緣卯酉供

劇 重得傷寒 呻喟彌旬 今

才小歇 而尚在枕席之間 區

區情況 有非泓穎可悉者矣

病餘手顫 不能究萬一 所祝

庸玉自護 伏惟

下照 謹拜上狀

甲 除夕前一日

植 頓

5. 신용개(申用漑, 1463~1519) : 자는 개지(漑之)고, 호는 이요현(二樂軒)이며,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昨日題鳳 今日忽披

辱書 其間

兄履珍重 何幸何幸

僕 尚不減而已 四十

九年人之事變 妾散

極甚 來臨一觀 如

何如何 不能盡悉

卽 用漑 頓

6. 김귀영(金貴榮, 1520~1593) : 자는 현경(顯卿)이고, 호는 동원(東園)이며, 본관은 상주(尙州)다.

景仰

高風 爲日久矣 冗務所

掣 未遂一場從容 忽

值

令駕南還 悵惘可言 輒

忘荒拙 錄奉近體一

篇 冀得

瓊報 以慰他日馳慕之

懷云

嘉靖 乙卯 仲春 念日

商山人 金貴榮 稿

7. 오건(吳健, 1521~1574) : 자는 자강(子強)이고, 호는 덕계(德溪)며, 본관은 함양(咸陽)이다.

伏承

下札 謹審過夜

體中一樣 區區仰慰 西伯上書

昨因下示而知之 入達與否

顧何由聞之耶 根台答書

以爲無論當否 此非其時 其言

信然矣 領相若濶略 則好 而吾

輩之居間解紛 無乃不緊耶

如見根台 則第當以

來教奉傳也 書本還上 姑不具

卽 弟 健 謝拜

8. 소영제(孫英濟, ?~1588) : 자는 덕유(德裕)고, 호는 추천(鄒川)이며,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承

問慰慰 可興之任 時未圖遞

如僕病生 力疾以行 則

病必加發 惘無所措 切擬

再再呈病 而監司遞去

尤用惘惘 就中 日者 見

京奇 別試進定事不見

矣 舍弟 初八修簡 亦無

進定之語 并惟

照審 謹拜復

卽日 濟 頓

9. 박순(朴淳, 1523~1589) : 자는 화숙(和叔)이고, 호는 사암(思菴)이며, 본관은 충주(忠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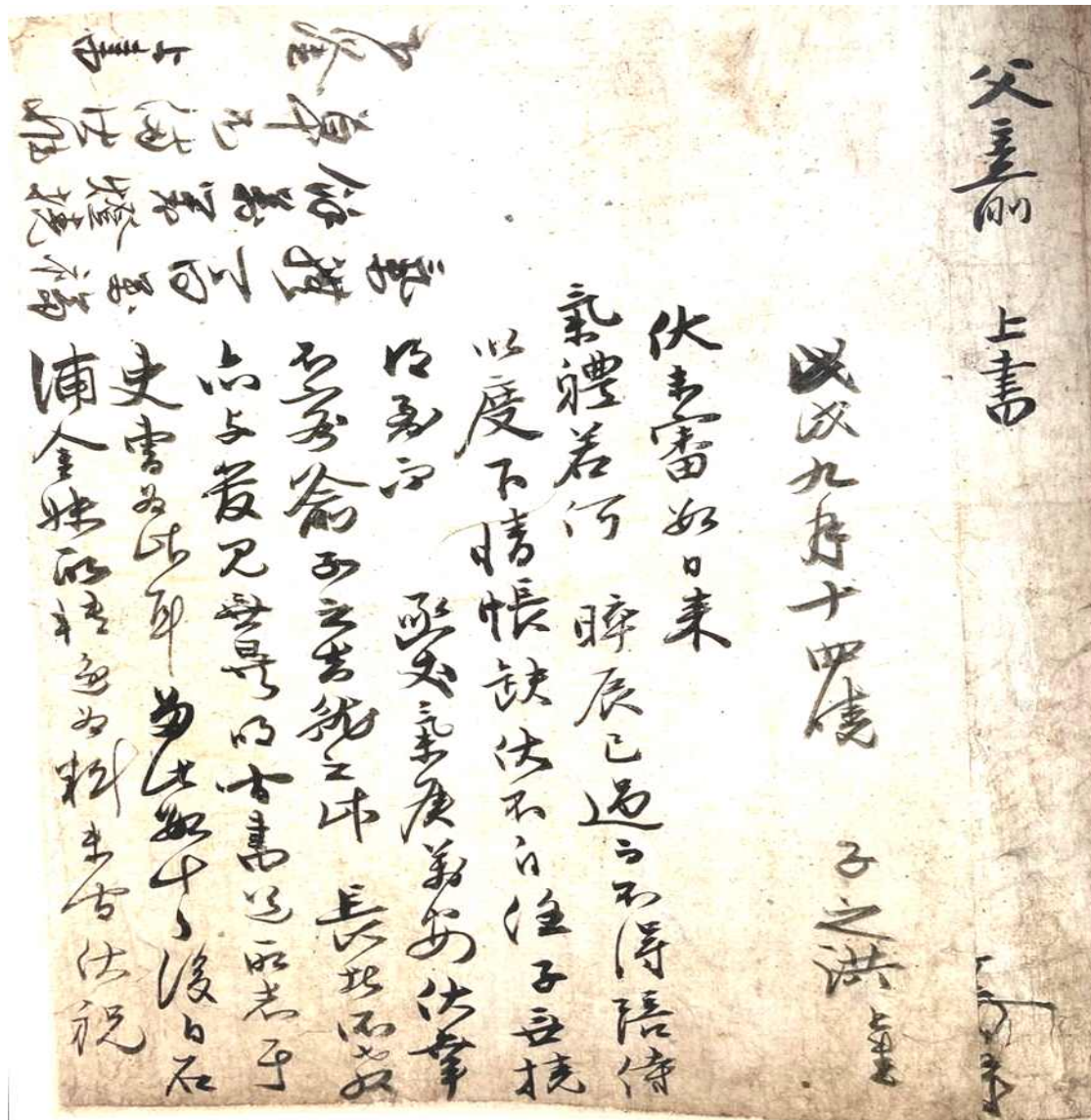
魂宮 祥事奄迫 群情

彌痛 謂外佯來 獲承

惠札 以審凝沍
政履有愼 驚念 區區
無已 記末 重經感 久未
差安 私悶何喻
惠來諸種 認出勤
意 兼謝不獨以物也
留俟早晏之奉 不
宣 唯望餞迎多福
丙子 元月 十四 淳
頓首

10. 정철(鄭澈, 1536~1593) : 자는 계함(季涵)이고, 호는 송강(松江)이며, 본관은 연일(延日)이다.

{皮封} 拜呈
謂外
下札 伏承極感 始認春暮
仕事萬迪 遠村安候連康云 甚
是遠賀千萬 僕 乞退還家 比前日
則俗事 頓無百忙 此亦
國恩 不勝感祝 無以知如何報也 禮記
依教付送耳 伏惟下照 謹拜謝復
三月 十日 澈 拜



한문번역실습 편지글 5주차 강의안

伏未審數日來 氣體若何 晬辰已過 而不得陪侍以度 下情悵缺 伏不自任 子無撓得到 而函丈氣候萬安 伏幸不容喻 子之去就之計 長者所教 亦與管見無異 明間書送所志于吏曹爲計耳 白石浦金妹所 轉還爲料 未間伏祝氣體一向萬安 餘萬對燈撓草 不備 伏惟下鑑
 戊戌 九月 十四曉 子 之洪 上書

1. 이원익(李元翼, 1547~1634) : 자는 공려(公勵)고, 호는 오리(梧里)며, 본관은 전주(全州)다.

頃因夢先去付書 想於今明 可以登
覽矣 便阻有日 日熱如火 戀意方
切 昨夕因縣吏來 得見十二出
問書 細審送還惡客無事
侍況政候 俱得平善 欣慰不可盡
言 此中一家諸處 俱無事 當守
主 亦得遞免是幸 而今年虐熱 曾所
未見 以病渴之身 而值此兇焰 如置身
於紅爐 或欲發狂大叫 且飲冷無算
必爲添病 憫憫奈何 此吏欲急歸 故
忙草不備 且祝虐炎侍下政履萬
重 奉謝狀
乙丑 流頭日 午 元翼 頓

지난번 몽(夢)이가 먼저 떠나는 편에 편지를 부쳤는데 오늘 내일 사이에 받아 보실 것입니다. 인편이 막힌 지 여러 날이 되었고, 해는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그리운 마음 간절합니다. 어제 저녁에 고을 아전이 오는 편에 12일 보내신 편지를 받고 나쁜 손님을 무사히 보냈고, 부모님 모시는 근황과 정사 보시는 안부가 모두 좋으시다니 기쁘고 위안되는 마음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일가 안부는 모두 무사하고 해당 수주(守主)도 체직은 면하였으니 다행입니다. 올해 같은 심한 더위는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소갈증(消渴症)을 앓던 몸으로 이런 혹독한 더위를 만나니 마치 붉게 달아오른 화로에 몸을 넣어둔 것 같아 미처 크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습니다. 또 셀 수도 없이 차가운 것을 마셔 필시 병이 더할 것이라 걱정되지만 어찌겠습니까? 아전이 급히 돌아가려 하기에 서둘러 쓰고 이만 줄입니다. 또 심한 더위에 부모님 모시고 정사 보시는 안부가 좋으시길 빌며 답장을 올립니다.

을축년(乙丑年, 1625) 6월 15일 한낮, 원익(元翼)은 머리를 조아립니다.

2. 조호익(曹好益, 1545~1609) : 자는 사우(士友)고, 호는 지산(芝山)이며,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頃承
枉訪 迨感
勤念 但日暮又雨
行色極艱 夜以轉側 追思罔措
未諳 卽今
尊履何如 采增傾僣 謝履之游 當
擇晴和之日 客一鞭羸耳
柳生員前 所懷如右 伏惟
僉尊照 謹上狀
辛丑 三月 十五日 好益 再拜

지난번의 찾아주신 것은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다만 날이 저물고 비가 내려 길을 나설 준비가 너무 힘들어 밤에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 일을 생각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

니다. 요사이 당신의 안부는 어떠신지요? 무척 그립습니다. 사극(謝履)의 유람은 좋은 날을 잡아 나그네가 되어 마른 당나귀에를 한번 채찍질하겠습니다. 유 생원(柳生員)에게도 소회가 위와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편지를 올립니다.
신축년(辛丑年, 1601) 3월 15일, 호익(好益)은 재배(再拜)합니다.

3. 유성룡(柳成龍, 1542~1607) : 자는 이견(而見)이고, 호는 서애(西厓)며, 겸암(謙庵 : 柳雲龍)의 아우다.

惘惘 伏承
辱書及惠詩 珍玩感歎
無已也 伏惟卽今
仕況 如何如何 鄙人路中 僅見
景雲一面 急於歸思 倍
道西來還家 奉母粗遣
靑壑澄山 圍繞閑廬 靜
裏登眺 亦自不惡 但不堪
思人不見之歎耳 如何可
謨合併 歸便甚忙 不能效
頌 竣後日 伏惟尊照
謹狀 丁丑 三月 廿日 成龍

망망(惘惘)합니다. 편지와 시를 받고 진귀하게 완미하며 끝없이 탄복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벼슬하시는 근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길에서 겨우나마 경운(景雲)이를 잠깐 만났지만 서둘러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평소에 비해 배나 서둘러 서울에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모시고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푸른 골짜기와 맑은 산이 한가한 집을 둘러싸고 있어 고요함 속에 산에 올라 내려다보면 이 또한 절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보고픈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탄식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모하여 함께 모일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는 인편이 너무 급해 당신의 편지에 흉내도 내지 못한 채 뒷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삼가 편지를 드립니다.
정축년(丁丑年, 1577) 3월 20일, 성룡(成龍)

4. 우성전(禹性傳, 1542~1593) : 자는 경선(景善)이고, 호는 추연(秋淵)이며, 본관은 단양(丹陽)이다.

南望悠悠 忽承滿尺長書 字
字句句 無非警語 不但道寒暄
敘殷勤而已 拆讀未卒 豈
勝欣慰 挾仙抱月 不知其隔千
里也 惠贐感則多矣 知
舊翰情 一書足矣
己正 望後 性傳

아득히 남쪽을 바라보며 지내던 중에 갑자기 한 자[尺]나 되는 긴 편지를 받으니, 글자마다 구절마다 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라 단지 안부나 전하고 은근한 뜻만 펴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기쁘고 위안되는 마음을 감당할 수 없었으니, 신선을 끼고 달을 안고 있는 듯해서 천리나 멀리 떨어진 줄도 몰랐습니다.

○기년(○己年) 보름 뒤, 성전(性傳)

5. 정구(鄭逵, 1543~1620) : 자는 도가(道可)고, 호는 한강(寒岡)이며, 백곡(栢谷 : 鄭崑壽)의 아우다. 선조 때 유일(遺逸)로 대사헌(大司憲)을 지냈다.

近以家奴來往 連奉

手書 且於錫命之來見

書 又細聞消息 孤寂 殊甚

慰幸 生 旅寓海曲 固是失

計 而水味不佳 恐不可久留

昨避於山中 一月而歸 明春

則勢於北還 交與扶此

亦時未有定 乘流得坎 何

所不可也 唯是一家 則張

會合無期 此亦勢也 無可

奈何矣 餘在荐書 臂痛

且艱書 姑此不一

臘月 三日 病生 逵

요사이 오가는 집의 종편에 연이어 편지를 받았는데, 또 석명(錫命)이가 와서 편지를 받고 자세한 소식을 듣고는 고적하게 지내던 차에 매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객지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진실로 잘못된 계획으로 물맛도 좋지 않아 아마 오래 머무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산속으로 피신했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내년 봄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라 사귄과 도움도 아직은 때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다 웅덩이를 만나는 것은 어딘들 없겠습니까? 오직 한 집안이 회합할 기약이 없으니 이 역시 상황상 그러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편지에 말씀드리고 팔이 아파 겨우 쓰며 이만 줄입니다.

12월 3일, 병든 사람 구(逵)

6. 이우(李瑀, 1469~1517) : 자는 계헌(季獻)이고, 호는 옥산(玉山)이며, 울곡(栗谷 : 李珣)의 아우다. 명종 때 첨정(僉正)을 지냈다.

卽承

惠書 仍審

渾舍如宜 喜慰喜慰

生 粗保如前 而未

得蘇息 可恨可恨

君之所患 何如是

耶 深念深念 熟地

黃 肉桂 無有 生

尙未知也
道簡 當傳巡相
是計 但未知
歸便之速歸與否
也 近日 若得
枉臨 幸可言耶
適值相切之人
携酒來勸 以此
困仆 不宣 并惟
照察 謹奉復
四月 初一日 玉山 翁

편지를 받고 식구들이 다 잘 지내신다니 기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겨우 전이나 다름없이 지내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몸이 낫지 않아 한스럽습니다. 그대의 병은 어떻게 이렇습니까? 몹시 걱정입니다. 숙지황(熟地黃)과 육계(肉桂)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편지는 순상(巡相)에게 전달은 하겠지만 인편이 빨리 돌아가는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만약 왕림해주신다면 다행스러움을 말로 하겠습니까? 마침 절친한 사람을 만나 술을 가져와서 권해 취해서 누웠다가 쓰며 이만 줄입니다. 모두 살펴주시기 바라며 답장을 씁니다.

4월 1일, 옥산(玉山) 늙은이

7. 송익필(宋翼弼, 1534~1599) : 자는 운장(雲長)이고, 호는 구봉(龜峰)이며,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頃以書達 未知
登覽否 卽候陽春
僉兄仕履若何 遠惟對時佳勝
弟 賤疾入春轉劇 吐瀉無止 昏
倒不省 只待用命者處分 悶不
可言 而且昨聞家鄉消息 則濟兒
重患寒疾 且添胸痛 專廢
飲啖 症甚非細云 驚慮煎懷
夙宵不置 此中情境 如何如何 餘不
備 伏惟
翼弼

지난번 보내드린 편지는 받으셨는지요? 요사이 따뜻한 봄 날씨에 여러 형들의 벼슬하시는 안부는 어떻습니까? 멀리서나마 절서에 따라 잘 지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병은 봄이 되니 더욱 심해 구토와 설사가 멎지 않아 혼수상태로 인사불성인 채 운명을 관장하는 조물주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으니 번민을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게다가 어제 고향소식을 들으니 제아(濟兒)가 심한 감기에 걸려 가슴통증까지 더해 전혀 먹지 못하고 병증이 너무 심하다니 놀라고 걱정되어 애타는 마음을 밤낮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형편을 어찌

하겠습니까? 나머지는 이만 줄이니 살피주십시오.

익필(翼弼)

8. 이영도(李詠道, 1559~1637) : 자는 성여(聖與)고, 호는 동암(東巖)이며, 퇴계(退溪)의 손자.

連見平書 深喜 順母 亦無事以歸
尤喜 此處依昨 生葛 依前書 一
一收捧載送爲可 嶷兒 昨夕出
歸其冰家 明當還矣 餘不具
甲寅 三月 十三日 父

연이어 평안하다는 편지를 받으니 매우 기쁘다. 순(順)이 어미도 무사히 돌아갔다니 더욱 기쁘다. 나는 여전히 지내고 있다. 생첩은 지난번 편지대로 하나하나 거두어서 실어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 억아(嶷兒)는 어제 저녁에 처가로 돌아갔다 내일이면 돌아올 것이다. 나머지는 이만 줄인다.

갑인년(甲寅年, 1614) 3월 13일, 아비가

9. 윤두수(尹斗壽, 1533~1601) : 자는 자양(子仰)이고, 호는 오음(梧陰)이며, 본관은 해평(海平)이다.

人間有此異境 賴
君指遙 得恣一覽
惠 安可夢寐忘 茲
承手字 慰深慰深 明明當
到光山 幸來訪如何
當有以來之 餘不盡
未間倍重 謹上復
九月 廿日 弟 斗壽

인간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그대가 멀리서 알려준데 힘입어 마음껏 구경하게 되니 어찌 꿈엔들 잊겠습니까? 보내신 편지를 받고 몹시 위안이 되었습니다. 모레쯤이면 광산(光山)에 도착할 테니 찾아와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땅히 오실 수 있겠는지요? 나머지는 이만 줄이고 뵈지 못하는 사이에도 배나 더 보중하시기를 바라며 답장을 드립니다.

9월 20일, 아우 두수(斗壽)

10. 이순신(李舜臣, 1545~1598) : 자는 여해(汝諧)고, 호는 ○○며, 본관은 덕수(德水)다.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였고, 통제사(統制使)를 지냈으며, 좌의정(左議政)에 증직되었다. 덕풍부원군(德豐府院君)에 봉해졌고, 시호는 충무(忠武)다.

蒙臨陋止 感幸則多矣
尊駕催還 鄙家酒薄 敘別
未厚 令人愧恨 不審反旆後
侍餘動靜如何 瞻邇不已 候
星無暇 未卽伴候 亦恨亦恨

餘千萬不宣 伏惟

尊照 謹拜上謝狀 卽 舜臣

누추한 저의 집을 찾아와 주시어 매우 감사하고 다행이었습니다. 당신의 수레가 바쁘게 돌아가는 바람에 저의 집에서 술대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후한 이별하지도 못해 사람을 부끄럽고 한스럽게 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 모시는 동정은 어떠하신지요? 그리운 마음 끝이 없습니다. 종이 여가가 없어 곧바로 심부름꾼을 통해 안부하지 못해 한스럽습니다. 나머지 많은 것들을 다 적지 않고 이만 줄입니다.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절하고 답장을 올립니다.

즉일. 순신(舜臣)

書問遠及仍審
 令服履支安披慰不已
 令伯持平之喪出於千萬
 不意凡在親知莫不慟
 怛况
 錫原之情哉想惟
 友愛隆深不得
 來參於憑棺臨穴之哭悲
 痛之懷何以堪勝僕荷
 令眷僅支老病他無足言
 鍾城以病得遞喜幸何極
 前日簡封因入政官傳
 送得見迨慰且感
 送惠乾魚昆布等物一
 一領之多謝多謝伏惟
 令照不宣謹答狀上
 庚午五月廿三日 尚容

別環油扇一柄送表
 領情揮蚊如何

書問遠及 仍審
 令服履支安 披慰不已
 令伯持平之喪 出於千萬
 不意 凡在親知 莫不慟
 怛 况
 錫原之情哉 想惟
 友愛隆深 不得
 來參於憑棺臨穴之哭 悲
 痛之懷 何可堪勝 僕 荷
 令眷 僅支老病 他無足言
 鍾城以病得遞 喜幸何極
 前日簡封 因入政官傳
 送得見 迨慰且感
 送惠乾魚昆布等物 一
 一領之 多謝多謝 伏惟
 令照不宣 謹答狀上
 庚午 五月 廿三日 尚容

別環油扇一柄 送表
 領情揮蚊 如何

1) 두표(元斗杓, 1593~1664) : 자는 자건(子建)이고, 호는 탄수(灘叟)며, 본관은 원주(原州)다.
 積阻中 承此
 情札委問 恰得對
 討 蘇慰十分 生

每欲進拜 自爾
未果 徒切悵悵
婚事 定於何間耶
凡具辦得爲難
奉慮區區 餘萬
不備 伏惟
情照 上謝狀
至月 廿二日 斗杓

소식이 막혔던 중에 위문(委問)을 받으니 흡사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 매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번 찾아뵙고 싶었지만 절로 그러지 못해 한갓 서운한 마음만 간절합니다. 혼삿날은 언제로 정하셨는지요?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은 마련하기 어려울 텐데 매우 걱정입니다.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정으로 살피주시기를 바라며 답장을 드립니다.

11월 22일, 두표(斗杓)

2) 조헌(趙憲, 1544~1592) : 자는 여식(汝式)이고, 호는 중봉(重峯)이며, 본관은 배천(白川)이다.

前日之
訪 有意留止穩話 憂患
忽生 卽地告還 何等
悵惜 昨便
惠書 承審歸侍利吉
慰慰 亦尤勝已 此數日依
遣 而尹生之病 亦向歇
幸矣 姑不宣 只希
尊照 謹謝狀 服人 憲 頓
壬申 十月 十二日

전날 찾아오셨을 때 머물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우환이 생기는 바람에 곧바로 돌아가시어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어제 인편으로 보내신 편지를 받고 무사히 잘 돌아가셨다니 위안되는 마음을 또한 이길 길 없습니다. 며칠을 그런대로 지내고 윤생(尹生)의 병도 나아가니 다행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당신께서 살피주시기를 바라며 답장을 드립니다. 복인(服人) 헌(憲)은 머리를 조아립니다.

임신년(壬申年, 1572) 10월 12일

3) 김덕령(金德齡, 1567~1596) : 자는 경수(景樹)고, 호는 ○○며, 본관은 광주(光州)다.

前書已照否 意外
委俸 仍審春和
侍履有相 慰喜慰喜
生 粗保病狀 而喪
慘之餘 意緒無聊
塊處海曲 歸意日
促 而再疏未遑 鬱
邑難堪耳
山陵時 當上京 其時可
得從容 病困不宣
初 五日 病生
德齡 頓

지난번 보내드린 편지는 이미 받아보셨습니까? 뜻밖에 심부름꾼을 보내와 따뜻한 봄 날씨에 부모님 모시고 잘 지내신다니 위안이 되고 기뻐합니다.

저는 그런대로 병든 상태로 지내고 있고, 상을 당한 슬픈 나머지 무료함에 바닷가에 아무 지각이 없는 흙덩이처럼 앉아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날마다 서둘러 두 번이나 상소를 올렸지만 체직되지 않고 있으니 수심을 견딜 수 없습니다. 산릉(山陵)을 갈 때 마땅히 상경할 것이니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으로 피곤하여 이만 줄입니다.

5일, 병든 사람 덕령(德齡)은 머리를 조아립니다

4) 하락(河洛, 1530~1592) : 자는 도원(道原)이고, 호는 환성재(喚醒齋)이며, 본관은 진주(晉州)다.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제학(提學)을 지냈다.

頃者 意外 得承
書問 重之以蘇魚之
惠 感謝
厚情 無以爲喻 此間 家運
不幸 少女 竟以前症 昨日不
救 痛悼之懷 何可以筆端
盡言也 萬萬心神悲撓 不能
一一 姑惟
照亮 拜謝狀
六月 十三日
服人 洛

지난번 뜻밖에 편지를 받고 아울러 댜댜도 보내주시니 감사한 후의를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집안의 운이 불행하여 어린 딸아이가 끝내 지난번 앓던 병으로 어제 죽었으니 애통한 마음을 어떻게 필설로 다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심신이 슬프고 안정이 되지 않아

일일이 다 쓰지 못합니다. 우선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절하고 답장을 드립니다.
6월 13일, 복인(服人) 락(洛)

5) 이윤우(李潤雨, 1569~1634) : 자는 무백(茂伯)이고, 호는 석담(石潭)이며, 본관은 광주(廣州)다.

潤雨 頓首 再拜 豚兒之來 伏承
下書 仰審
憂服之中 頓
有不安節之候 伏增憂慮之至 竊想神明所扶持
已勿藥之喜矣 信後忽已數月 伏未審卽今炎熱
寢息若何 伏慮不已 樂齋丈 竟不起疾 聞來驚
怛 豈不慟也 德門衰薄 一至於此 天道 果可恃乎
今年旱災 八方同然 以南中爲尤甚出 公私
憂撓 非淺非淺耳 餘伏祝
若時爲道懋勉 以副遐跂 伏惟
下鑑 謹不備 再拜狀上
萬曆 四十三年 六月 初十日
門下 李潤雨 頓首 再拜

윤우(潤雨)는 머리를 조아려 재배합니다. 저의 아이가 오는 편에 보내신 편지를 받고 복중(服中)에 편치 않으시다니 더욱 걱정입니다. 신의 도움으로 지금은 이미 병이 나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식을 받은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침식은 어떠하신지 걱정이 마지않습니다.

악재(樂齋) 어른께서는 끝내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놀라고 슬픈 마음에 어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덕망이 있는 집안의 쇠약함이 하나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하늘의 도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올해는 가뭄의 재앙은 전국이 마찬가지로, 특히 남쪽은 더욱 심하게 발생했으니 공사간에 근심과 번요함이 적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계절에 따라 도를 위해 더욱 힘써 멀리 있는 저의 바람에 부응해 주시기를 빕니다. 살펴주시기를 벌고 이만 줄입니다. 재배하며 편지를 올립니다. 만력(萬曆) 43년(1615) 6월 10일, 문하생(門下生) 이윤우(李潤雨)는 머리를 조아리고 재배합니다.

6) 이전(李堧, 1558~1648) : 자는 숙재(叔載)고, 호는 월간(月澗)이며, 본관은 흥양(興陽)이다.

初寒 未審
闔況如何 鄉往不已 此處大都
平安 但龍宮甥女 今十六日 不起
疾 悲念曷勝 子女六人 一未昏
嫁 此尤不可忍也 聞
歸計已決 不欲受護軍祿云 食
口甚衆 何以支過 奉慮千萬
逆獲又起 國家之不幸也 所恃
聖明在上 必無如前冤枉之事矣
愚翁 當於明明發程耳 餘
祝
將理萬慎 起居益福 統惟
照亮 謹狀
十月 二十日 家兄 叔載

첫추위에 식구들의 안부는 평안한가? 이곳은 대체로 편안하지만 용궁(龍宮)의 질녀가 이달 16일에 병으로 죽었으니 비통한 마음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여섯 아이들 중 하나도 시집보내지 않았는데 이것이 더욱 견딜 수 없네. 돌아갈 계획은 이미 결정이 났지만 호군(護軍)의 녹봉은 받지 않기로 했더니 식구들도 많은데 어떻게 지낼지 매우 걱정이네.

반역을 토벌하다 죄를 얻는 일이 또 발생하니 나라의 불행이네. 믿을 것이라고는 왕께서 위에 계시니 반드시 전처럼 원통한 일은 없을 걸세. 우옹(愚翁)은 모레 출발하네. 나머지는 이치에 따라 모든 일들을 삼가고 많이 받기를 바라네. 살펴주기 바라며 편지를 보내네.

10월 20일, 가형(家兄) 숙재(叔載)

7) 서성(徐潯, 1558~1631) : 자는 현기(玄紀)고, 호는 약봉(藥峯)이며, 본관은 달성(達城)이다.

獻歲發春 伏惟
道體起居萬福 區區欣
賀 實切下誠 下生 病縮
度日 僅免他撓 私居
貧約 無由以時致人
候起居 惟是嚮往
之情 不能食息舍也
相居隔遠 奉拜未涯
多少非筆札所能
悉 只祝
爲道加護 以副士望 不宣
伏惟

下鑑 謹拜上候狀

丁亥 正月 旬日 下生

徐滄 頓首

묵은해를 보내고 봄이 되었는데, 도(道) 닦으시는 당신의 안부는 좋으시리라 생각하니 저의 기쁘고 축하드리는 마음 진실로 간절합니다. 저는 병으로 옹크린 채 날을 보내면서 겨우 다른 번요한 일들은 벗어났습니다. 살림살이가 가난하여 계절마다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을 수도 없지만 오로지 당신을 그리워하는 정만은 밥 먹을 때나 숨 쉴 때조차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는 곳이 멀어 찾아볼 기약할 수가 없고 다소간의 사연들도 편지로 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를 위하여 더욱 더 몸을保重하시어 선비들의 바람에 부응하시기를 빌며 이만 줄입니다.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편지를 드립니다.

정해년(丁亥年, 1587) 1월 10일, 하생(下生) 서성(徐滄)은 머리를 조아립니다

8) 송량(宋亮, 1534~1618) : 자는 경명(景明)이고, 호는 우곡(愚谷)이며,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阻面阻音 戀鬱不須言 未知近

間

雅履安迪否 昨年以來 有同經

亂 彼此消息 無緣聞知 人事

可歎 從 身董免恙 此則幸矣 而

一家喪憾連仍 少無人世之況

自憐自憐 何當會面 吐此

襃積之懷也 回頭疇昔 只

自涕流而已 適仍此棘人之

過去 草此不宣狀

己亥 十一月 二十七日 從 景明

만남도 편지도 모두 막혀 그립고 답답한 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요사이 잘 지내시는지요? 작년 이후로 함께 난리를 겪은 처지라 서로의 소식을 들을 인연이 없으니 인사가 매우 탄식스럽습니다.

저는 겨우 병에 걸리지 않고 지내는 것이 다행이지만 온 집안에 초상이 이어지니 조금도 세상사는 정황이 없어 제 자신이 가련합니다. 언제쯤 만나 쌓인 회포를 풀 수 있겠습니까?

예전 일을 회상하니 절로 눈물이 흐를 뿐입니다. 마침 들른 극인(棘人)을 통해 급히 편지를 부치고 이만 줄입니다.

기해년(己亥年, 1599) 11월 27일, 조카 경명(景明)

·棘人 : 《시경》 회풍(檜風) 소관(素冠)에, “행여 흰 관을 쓴 극인의 수척함을 볼 수 있을까.[庶見素冠兮 棘人樂樂兮]”라고 하였는데, 주(註)에, “극(棘)은 급하다는 뜻으로 상주는 급하여 경황이 없기 때문에 상주를 극인이라 하며, 난란(樂樂)은 수척한 모습이다.” 하였다.

9) 배상룡(裴尙龍, 1574~1655) : 자는 자장(子章)이고, 호는 등암(藤庵)이며, 본관은 성주(星州)다.

蕭寺一散 音徽杳然 暮年老懷
倍不自勝 局吏來致
貴緘 如對
舊儀 慰瀉無已 古規久廢 今遠復見
想局中凡百墜廢 從此日新 此
間起感 不但爲老饒一飽而已
歲且換矣 未涯一奉 可勝依
悵 惟冀
新祀益茂 不宣上謝狀
除夕 尙龍

절에서 헤어지고 나서 소식이 아득하니 노년의 회포에 배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의국(醫局)의 아전이 와서 당신의 편지를 전해주시니 얼굴을 마주하는 것 같아 끝없이 위안되었습니다.

옛 규약이 오래전에 폐지되어 지금 멀리서나마 다시 의국(醫局)의 모든 황폐했던 상황들이 지금부터 날로 새롭게 정비될 것이라 생각하니 일어나는 저의 감정은 걸신들린 사람이 실컷 배 불리 먹는 것 같을 뿐만이 아닙니다.

한 해가 바뀌어 가는데 한번 만날 기약조차 없어 서운함을 이길 길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만 줄이고 답장을 올립니다.

선달 그믐날 밤, 상용(尙龍)

·蕭寺 : 불교를 독실하게 믿던 남조 양(南朝梁)의 무제(武帝)가 절을 지은 다음 자신의 성(姓)인 소(蕭) 자를 쓰게 한 일에서 온 말로, 사찰을 뜻한다.

10) 정경세(鄭經世, 1563~1633) : 자는 경임(景任)이고, 호는 우복(愚伏)이며, 본관은 진주(晉州)다.

久欲一造 餘寒尙緊 閉縮不敢
出 未委比來
靜居味趣何似 懸慕常勤 就
有小稟
先生 答老兄書 遇遯一稿云云 一段
辭嚴義正 最可爲後學矜式 而
老兄 乃刪抹中間一兩語 未知
兄意何在 以爲煩人眼目 或作禍機
則陳迹已遠 人必不怒 以
兄之明 豈畏此耶 如以爲疏 既不上
則自當藏去 不可延緩 故敢此委告
幸細思見教如何 刪則當 自今承至諒
之 七行盡刪 無留一字 爲得矣 不宣
既望 經世

오래전부터 한번 찾아뵙고 싶었지만 남은 추위가 아직은 매서워 문을 닫고 외출도 못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정양하시는 취미는 어떠하신지요? 간절히 그립습니다. 다름 아니라 조금 여쭙어볼 것이 있습니다. 선생께서 노형께 답장을 하여 “태워버릴 상소다.”라고 하셨는데 말이 엄정하여 후학들의 자랑이 될 만하였습니다. 그런데 노형께서 중간에 한 두 말을 지우셨는데 형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번거롭게 하거나 재앙이 짝이 된다고 생각하신 것이라면 자취가 이미 오래되어 사람들이 굳이 화를 내지 않을 것인데 형의 명철함으로도 어찌 이를 두려워하신 것입니까?

만약 상소가 이미 올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면 스스로 마땅히 감추거나 없애기를 지연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감히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자세히 헤아려 말씀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삭제할 것이면 마땅히 ‘금승(今承)’부터 ‘양지(諒之)’까지 일 곱 줄을 한 글자도 남김없이 모두 지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16일, 경세(經世)

·遇遯 : 송(宋) 나라 주자(朱子)가 상소하려고 기초를 해 두고 점을 쳐서 둔괘(遯卦)를 만나서 그 소장을 불태워 버렸다.

令兄 謝上狀
 仁川 鈴下史
 令駕入城 全未聞知 久闕就
 拜 此恨當切 卽承
 令侍履政況 對時安穩 慰
 蘇已極 況此
 惠送海味 寔合病口 珍感
 如何 迷兒所患 小無差勢
 老境心事 不忍言喻 而此
 際 爲差安胎使 將往公
 州地 此亦難狀 餘俟
 戾洛謀謝 伏惟
 下鑑 謹謝上狀
 辛 臘月 六日 爾載

令兄 謝上狀
仁川 鈴下史

令駕入城 全未聞知 久闕就
拜 此恨當切 卽承
令侍履政況 對時安穩 慰
蘇已極 況此
惠送海味 寔合病口 珍感
如何 迷兒所患 小無差勢
老境心事 不忍言喻 而此
際 爲差安胎使 將往公
州地 此亦難狀 餘俟
戾洛謀謝 伏惟
下鑑 謹謝上狀
辛 臘月 六日 爾載

1. 정운(鄭蘊, 1569~1641) : 자는 휘원(輝遠)이고, 호는 등계(桐溪)며, 본관은 초계(草溪)다.

謹問

僉尊況如何 慕用深至

僕 久忝院任 一未隨參駿

奔之後 揆之情義 大有所

未安 今茲春

享 進參定計 適因家間

有祀事 略自澡潔 前日折

傷處 轉覺呻痛 人言沐浴

甚害於落傷 此無足怪云 若

然 則雖能扶曳進去 似未參

祭 奈如之何 罪恨交極無已 茲

敢專俛仰報 伏惟

僉照 謹拜上狀

仲春 旬一 蘊

2. 윤신지(尹新之, 1582~1657) : 자는 군우(君又)고, 호는 현주(玄洲)며, 본관은 해평(海平)이다.

老病之人 加以連歲悲苦

窮獨不死 尙此延喘 不料

令監 能置念中 特垂存恤

副以節扇 殊非今世人情

感嘆之至 不知所喻

委問及此 感媿交極萬

萬 只祝

爲國加愛 伏枕草謝 不宣

伏惟

令鑑 謹拜上謝狀

乙未 五月 廿四日 新之 頓首

3. 최현(崔峴, 1563~1640) : 자는 계승(季昇)이고, 호는 인재(叵齋)며, 본관은 전주(全州)다.

吳山文會 擬盡平生未盡之

懷 而惛惛稠中 竟未得伸一情

話 別來老懷 益覺愴然 茲

蒙專人 拜奉手札 豈勝

欣慰 鄙生 還窩之後 連患

寒疾眼疾 坐臥不安 痛眼莫

開 迷孫 又往青松 寄無子弟

苦不可言 前來問答一卷 草率

看過 付標以稟 今來詩集一卷
亦以暫見 并付標送還 何異盲者
指點之圖本乎 唯在
僉賢契 更詳之耳 揩眼不
成草 不封緘 仰惟
恕鑑 謹拜狀
丙子 至月 十五日 晁 頓首

4. 이정구(李廷龜, 1564~1635) : 자는 성징(聖徵)248)이고, 자는 월사(月沙)며,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隔年阻濶 悠悠不已 卽奉
遠寄書 如對千里之顏
慰瀉難喻 諸公來
見 道兄閑居 靜況甚
適 令人馳羨 生 乾沒至
此 推擠不去 應爲老
兄所嗤 自憐奈何
諸公 俱是佳士 一見傾
蓋 便如元賓 餘忙不備
伏惟尊亮 拜上謝狀
廷龜

5. 장흥효(張興孝, 1564~1633) : 자는 행원(行源)이고, 호는 경당(敬堂)이며, 본관은 인동(仁洞)이다.

興孝 謹齊沐裁書于
寒岡鄭先生座下 伏聞
先生 違和有年 尋常懸戀 無任遠誠 邇來春
和 不審
調體 已膺勿藥否 念昔
先生 來莅茲土 首興儒教 勉人以爲己之學 朽質
如興孝 亦蒙
先生 獎勵誘掖之勤 不啻若父母生成之恩 則聞
先生病 義當趨走展省 而羸病羈之 山川間之 不
得復致身門牆之下 以盡篤信嚮往之情 小
子辜恩負義之罪大矣 伏惟
下鑑 謹不備 再拜
上候狀
萬曆 四十四年 三月 二十三日 侍生 興孝

6. 곽재우(郭再祐, 1552~1617) : 자는 계수(季綏)고, 호는 망우당(忘憂堂)이며, 본관은 형풍(玄風)이다.

瞻穎中 謹承

令監問惠札 拜審

政履佳勝 仰慰仰慰 葦服人 親

瘡 以暑痢 浹旬彌留 私

情焦悶何言

眷惠箠依領 鳴謝不已

餘不宣 伏惟

令下察 謹謝狀上

壬辰 六月 二十日 再祐

7. 최항경(崔恒慶, 1560~1638) : 자는 덕구(德久)고, 호는 죽헌(竹軒)이며, 본관은 영천(永川)이다.

謹問

僉候何如 仰慕仰慕 僕 身有疾恙 徑自退來

常切愧恨之至 所患疴證 尚未快瘳 私憫可喻

第永葬發引日 想已涓吉 而遠未得聞 伏慮伏慮

山所沙土之役 若速爲始事 則當往來監董

豫以伏計 凡卜日期 仰須

下示 餘祈

僉況保衛 不宣 謹拜

狀上

庚申 正月 十七日

崔恒慶 頓

8. 조임도(趙任道, 1585~1664) : 자는 덕용(德勇)이고, 호는 간송당(澗松堂)이며, 어계(漁溪 : 趙旅)의 후손이다.

伏問春和佳節

令體起居若何 尋常馳慕 而一未趨候 於

出寓之後 情禮掃地 愧負何釋 任道 婢僕

逃散之餘 家事零落 將無以自存

令丈 命召其男 申申開誘 使之覺悟 俾無損傷

平相切之義 千萬伏祝 任道 方困於希雲之侵辱

而援兵 又從而四至云 若於此時 又有人唾掌 而陰行

其計 則豈仁人君子之所忍爲者哉 情勢迫隘 信

筆及之耳 伏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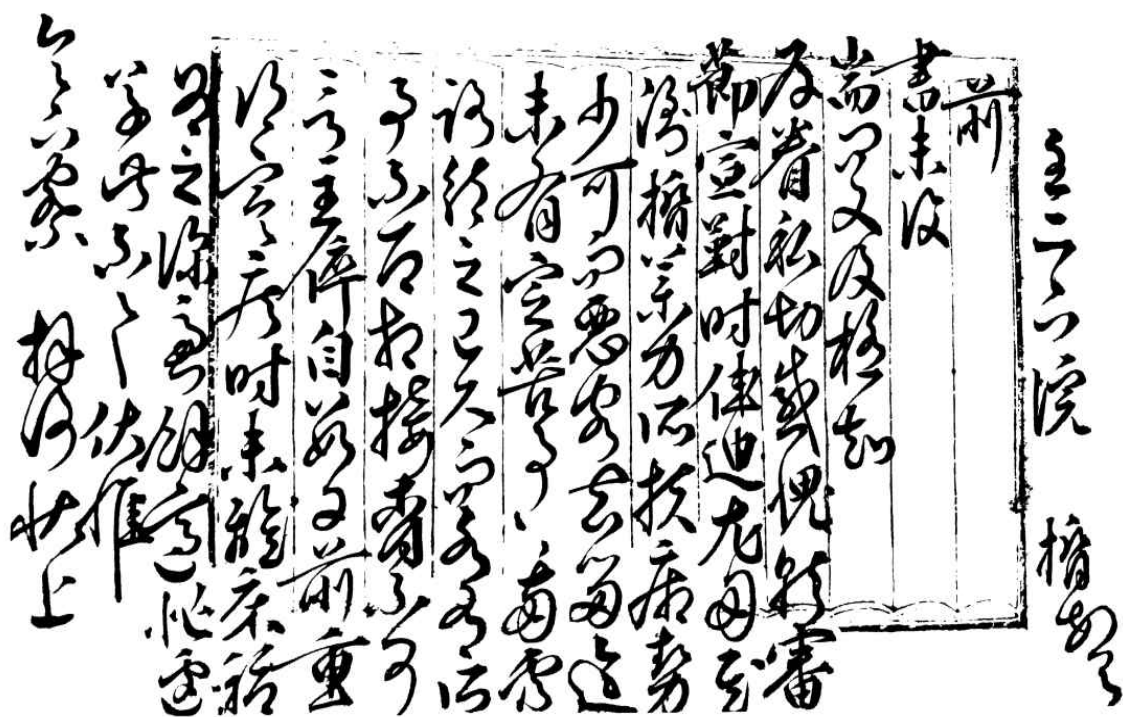
令鑑 謹拜上候狀 辛未 三月 十四日
記下 趙任道 再拜

9. 오두인(吳斗寅, 1624~1689) : 자 원징(元徵)280)이고, 호는 양곡(陽谷)이며, 본관은 해주(海州)다.

伏惟此時
政候有相 仰慰無已 僕 行
期已迫 私悶可喻 遠離親庭
心緒難堪矣 惠來四種
魚饌 依受深感 行役之前 加
餐尤幸 來月廿七 迷兒當行
婚禮於南陽 而弟不得留滯
此間 缺然如何 坡州叔父 聞將
率去 令監 若無大段事故
未可忘勞馳往 繞送生
彩耶
令下照 謹拜上謝狀
辛 十 廿三 吳斗寅 頓

10. 이안눌(李安訥, 1571~1637) : 자는 자민(子敏)이고, 호는 동악(東岳)이며, 본관은 덕수(德水)다.

伏承
下書 仰慰無量 第數日來 初寒頗
緊 不審
尊體平安 瞻戀倍切 妻以兒
輩寒衣未備 久稽來使 今始
進去 想勤
尊慮不勝未安 身患氣症服藥
調治 尙未快差 遽差西行 近來
此任 厭避成風 自
上屢下嚴教 至有斷以軍律 白衣
從軍之教 及身啓差之後 又
下催促之命 世難難料 奉拜無
由 臨書悒悒 言不能喻 伏惟
鑑察 謹拜
上覆狀
壬戌 十月 十二日 侍生
李安訥 頓首



前
 書未復
 崑問又及 極知
 厚眷 私切感愧 就審
 節宣 對時佳迪 又用慰
 倒 暫 藥力所扶 病勢
 小可 而惡客去留 迄
 未有定 苦事苦事 南雲
 洛待之已久 而各有所
 事 不即相接 鬱不可
 言 主倅 自數日前 重
 得寒疾 時未離床 稍
 爲之深慮 餘適忙遽
 草此不具 伏惟
 令下察 拜謝狀上
 壬 二 下浣 暫 頓首

1. 남용익(南龍翼, 1628~1692) : 자는 운경(雲卿)이고, 호는 호곡(壺谷)이며,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靑門奉別 至今依仰 伏想此時
軒蓋已返 不審方
駐何邑 而
氣體若何 區區伏慕之至 侍生 奉
親依遣 它無仰達 迎拜不出
姑此憑便仰候 謹不備 伏
惟
下鑑 謹拜上候狀
庚戌 四月 十七日
侍生 南龍翼 頓

청문(靑門)에서 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그립습니다. 이때 당신의 행차는 이미 돌아오고 계실 듯한데 어느 고을에 머무르며 안부는 어떠하신지, 간절히 그립습니다.

저는 부모님 모시고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마중을 나가지 못하고 우선 인편을 통해 안부를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절하고 편지를 올립니다.

경술년(庚戌年, 1670) 4월 17일, 시생(侍生) 남용익(南龍翼)은 머리를 조아립니다.

※청문(靑門) : ‘도성문(都城門)’을 이른다. 한 나라 장안(長安)의 동쪽문인 패성문(霸城門)이 청색이었던 데서 이르는 말이다

2. 김집(金集, 1574~1656) : 자는 사강(士剛)이고, 호는 신독재(愼獨齋)며, 사계(沙溪 : 金長生)의 아들이다.

念中 令從氏 遠訪於寂寞
之間 可慰 近日阻懷 因知近日
道履 漸就佳穆云 甚喜甚喜 此
窮處僻陋 稍可爲慰者 連日
學工問論 實不草草耳 如君
超人之才 巧值有故 錯打以度 良
多可惜 餘便忙不盡所懷矣
卽 欠 頓

그립던 중에 영감의 종씨(從氏)께서 멀리서 적적한 가운데 방문해 주시어 요사이 소식이 막혀 답답했던 마음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요사이 도 닦으시는 안부가 점점 좋아지신다니 매우 기쁩니다. 궁핍하게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제가 조금이나마 위안되었던 것은 연일 학문하고 토론하는 것이 실로 영성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대처럼 남보다 뛰어난 인재가 공교롭게 연고를 만나 잘못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머지는 인편이 바빠 이만 줄입니다. 즉일, 흠명(欠名)하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3. 허목(許穆, 1595~1682) : 자는 화부(和父)고, 호는 미수(眉叟)며, 본관은 양천(陽川)이다.

台體所患頗重 不勝驚慮之至

積傷之餘 卒有此患 但不在

衰暮之年 當有完復之喜

是所望也

台教藥錄 敢不許耶 但本府

無丸藥全材行下之例 如用

湯劑

更示何如 近得圖書新錄 此何如

伏惟台鑑 謹拜謝上復書

穆 拜

대감의 병환이 꽤나 깊어 놀랍고 걱정되는 지극한 마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은 상처가 끝내 병을 이루었지만 쇠약하고 늙은 나이에 생긴 것이 아니어서 회복될 기쁨이 있을 것이니 이를 희망합니다.

대감께서 말씀하신 약재를 감히 허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관부(官府)에서 환약과 모든 약재를 행하(行下)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만약 탕약으로 쓴다면 다시 알려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요사이 도서(圖書)에 관한 새로운 기록을 얻으셨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대감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절하고 답장을 올립니다.

목(穆)은 절합니다.

주로 쓴다.

※행하(行下) : 여러 고을에 관자(關子)를 내리거나, 상급 관청에서 관하에 관자를 보내어 허락하는 것을 이른다.

4. 송준길(宋浚吉, 1606~1672) : 자는 명보(明甫)고, 호는 동춘당(同春堂)302이며,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耑書荐至 感愧十

分 況此兩壺壺山春

實是生平所願欲

而未得者 卽與客對

酌 陡覺春意 在茲

良喜良喜 第盛名之

下 其實難副 人固

甚焉 物亦宜然 令

人發長歎 願

尊政聲 勿如此及

唉唉 日昏潦草 不宣

甲元 廿八日 老生 浚吉

거듭 편지가 도착하니 매우 감사하고 부끄럽습니다. 더구나 이 두 병의 호산춘(壺山春)은 참으

로 평소 원했지만 얻지 못하던 것입니다. 즉일에 손님과 마주하고 술을 마시자 별안간 봄을 느끼겠으니 참으로 기쁩니다. 높으신 명성 아래에서 실로 부응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에게도 참으로 심하고 물건에도 그러해서 사람을 길게 탄식하게 합니다. 당신께서는 정성(政聲)으로 저를 언급하지 말아주십시오. 우습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지럽게 쓰고 이만 줄입니다.

갑○년(甲○年) 1월 28일, 늙은이 준길(浚吉)

※호산춘(壺山春) : 전라북도 여산(礪山)에서 생산되던 특주다. 여산의 또 다른 이름이 '호산(壺山)'인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春'은 '술'이라는 뜻이다.

5. 송시열(宋時烈, 1607~1689) : 자는 영보(英甫)고, 호는 우암(尤菴)이며,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卽刻家便 自京下來 門
外以染疾 今廿五日未時 捐
逝 痛哭痛哭 最是善姪 往
在尙衙 諸姪 皆在鄉 兒輩
自此上去 直入救病 仍以遭
喪 渠氣虛體肥者 何
以扶持 終能免染 又不可
保思之 尤切痛哭 家無
使喚 遞借鎮便以告 不
宣
辛丑 三月 廿九日 時烈

곧바로 집안의 인편이 서울에서 내려왔지만 전염병으로 문밖에서, 이번 달 25일 미시(未時, 오후 1~3시)에 세상을 떠났으니 통곡하고 통곡합니다. 서둘러 조카 선(善)이를 상주(尙州) 관아에 보내고 여러 조카는 모두 고향에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올려 보내 곧바로 들어가 병구완하게 하려했는데 이어 초상을 당하였으니, 원기도 약하고 살찐 사람이 어떻게 견디며 끝내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몸을 보존하지 못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애통합니다. 집에 사환이 없어 진영(鎭營)의 인편을 빌려 말씀을 드리고 이만 줄입니다.

신축년(辛丑年, 1661) 3월 29일, 시열(時烈)

6. 권시(權誥, 1604~1672) : 자는 사성(思誠)이고, 호는 탄옹(炭翁)이며,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昨奉
書翰 今欲仰報 而未及矣
又此
貽書 承審夜
況安勝 慰不可言
示意 謹已領會 而前此有未

易仰副者 亦其勢然爾
今夕 當有繞行於遠坊
歸後 或荷來過 甚幸矣
便服何傷 餘擾不宣
卽日 認 頓

어제 편지를 받고 오늘 답장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이번에 보내신 편지를 받고 밤사이에 편안하시다니 말할 수 없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이미 잘 알았습니다. 종전에 쉽게 부응하지 못했던 것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마땅히 먼 곳으로 요객(繞客)의 행차가 있어서 돌아온 뒤에 혹시라도 방문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평상복인들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번요하여 이만 줄입니다. 즉일, 시(認)는 머리를 조아립니다.

7. 장응일(張應一, 1599~1676) : 자는 경숙(經叔)이고, 호는 청천당(聽天堂)이며, 여헌(旅軒 : 張顯光)의 아들이다.

卽見下人告目 知
遂欲歸之意 此在
城主爲可喜 其於民情 豈勝落
莫 如民者 白首此別 當以泉下
爲期 悵黯曷喻 近埃泥路稍
乾 一趨伏計 兒子 昨已登程 方
爲之依歎 伏惟
尊鑑 謹拜候狀上
壬子 閏月 十七日 民 張應一

오늘 하인이 가져온 고목(告目)을 보고서야 돌아가고 싶다는 의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성주의 입장에서는 기쁘시겠지만 백성들의 쓸쓸한 심정을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화민(化民)은 백발에 이별을 하게 되니 저승에서나 기약할 듯하니 서운함을 어떻게 말로 하겠습니까? 최근 진흙길이 조금 마를 때를 기다렸다가 한번 찾아뵈 생각이었는데, 아이가 어제 벌써 길을 떠나버려 탄식스럽습니다. 당신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안부편지를 드립니다. 임자년(壬子年, 1672) 윤달 17일, 화민(化民) 장응일(張應一)

※고목(告目) : 조선시대 각사(各司)의 서리와 지방 관아의 향리가 상관에게 공적인 일을 알리거나 문안할 때 올리는 간단한 문서를 이른다.

※화민(化民) : 자신이 사는 고을 수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이르는 말로, 수령의 교화를 입은 백성이란 뜻으로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8. 이관징(李觀徵, 1618~1695) : 자는 국빈(國賓)이고, 호는 근곡(芹谷)이며,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卽惟新元
閑履增勝 慰溯交至 顧此歲與
齒添 無況可道 楊口畚庫 賣買

事 何以爲之 如欲買取 則價錢 何
 不送來 如不欲買取 則六十文 何不
 投還 前冬因後坪金生家付書
 尙不見答 殊乖面約 相信之意 極
 可怪訝 茲更送奴 價錢與文券兩
 岐間 此便付送如何 昨秋稅穀
 果捧來 則亦望送來耳 如未捧
 來 則方欲自此送奴收捧 須
 詳示之如何 病情不宣 伏惟
 尊照 謹候狀
 元月 旬三 觀徵 頓

새해에 한가히 지내시는 안부가 더욱 좋으시리라 생각하니 위안과 그리움이 교차합니다. 이
 해를 돌아보니 나이만 먹고 좋은 상황이 없음을 말로 하겠습니다. 양구(楊口)의 논과 창고를
 매매하는 일은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만약 매입하실 생각이 있다면 돈을 왜 보내지 않으십니
 까? 그리고 매입하지 않으실 생각이면 60문(文)을 왜 돌려주지 않으십니까? 지난겨울 후평(後
 坪)에 사는 김생의 집으로 부친 편지에 아직도 답장을 받지 못해 만남의 약속이 어긋나고 말
 아 서로 믿는 뜻에 매우 괴이하고 의아하여 이렇게 종을 보냅니다. 돈과 문서, 두 가지 가운
 데 이 인편을 통해 보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난가을 세곡(稅穀)을 받으셨으면 보내주시
 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받지 못했다면 이번에 보내는 종을 통해 받아오게 할 것이니 모쪼록
 자세히 알려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병으로 대필하고 이만 줄입니다.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편지를 올립니다.

1월 13일, 관징(觀徵)은 머리를 조아립니다.

9. 이숙(李勳, 1626~1688) : 자는 중우(仲羽)고, 호는 일휴정(逸休亭)313)이며, 본관은 우봉(牛
 峰)이다.

卽見兩度書 知好在
 深慰 吾再昨 到此 今日
 還向新陵耳
 汝以假通禮 當出中路
 則無馬何以爲之 深念
 江華去人 此書送之
 忽忽不具
 父 九月 廿九

오늘 두 통의 편지를 받고 잘 지낸다니 매우 위안이 되었다. 나는 그제 이곳에 도착을 해서
 오늘 신릉(新陵)으로 향한다. 너는 가통례(假通禮)로 중간에서 출발을 해야 할 것인데 말없이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다. 강화도로 가는 인편에 편지를 보낸다. 바빠서 이만 줄인다.
 아버가, 9월 29일.

※가통례(假通禮) : 임시로 맡은 통례(通禮)를 이르는 말이다. 통례원(通禮院)의 정3품 벼슬로,

좌우 각 한 사람씩 두었다

10. 김용(金涌, 1557~1620) : 자는 도원(道源)이고, 호는 운천(雲川)이며,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前在龜巢一見 幸矣 第
君效鄭伯之逃 不得面別 追
惟悵缺 無以爲懷 卽奉
問字 憑悉
還旆安吉 良用慰浣 生 中
路疾作 僅來任所 又負
襄陽之約 可咲可恨 內行
日昨 無事入來 而官事 如
倒亂髮 愁病山積 張銘
覓送何如 若優送 則可分用
也 當須豫謀之 爲妙爲妙
統惟心照 不宣 謹狀
壬 三 初五 涌 頓

지난번 구소(龜巢)에서 한 번 만났던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그대가, 달아난 정백(鄭伯)을 본받아 만나지도 못하고 헤어졌으니 서운한 마음을 달랠 길 없었는데, 오늘 문안 편지를 받고 잘 돌아가셨다니 매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도에 병이 나서 겨우 부임지로 오는 바람에 또 양양(襄陽)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저버리게 되었으니 우습고도 서운하였습니다. 내행(內行)은 며칠 전 무사히 들어왔지만 관청의 일이 마치 헝클어진 머리처럼 뒤엉키어 근심과 병통이 산적입니다.

장명(張銘)을 구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약 넉넉히 보내주시면 나누어서 쓰겠습니다. 마땅히 반드시 미리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이며 편지를 드립니다.

임○년(壬○年) 3월 5일, 용(涌)은 머리를 조아립니다.

※달아난 …… 본받아 : ‘鄭伯’은 정 나라 장공(莊公, ?~?)을 이른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 5년 조(條)에, 그해 가을 제후들이 수지(首止)에 회맹하였는데, 주 나라 혜왕이 정백을 총애하여 초 나라를 따르고 진 나라를 도우라는 명령을 내리고, 정백은 천자의 명령을 기뻐하였으나 제 나라의 관계가 소원하였던 것을 두려워하여 동맹에 참가하지 않고 군대를 버려둔 채 도망가 홀로 나라로 돌아간다는 기사가 있다. 여기서는 상대에게 환대를 받았지만 돌아가 버리는 것을 빗대어 이른 말이다